

『잃어버린 낙원』과 성서의 상호 텍스트성:
아담의 창조이야기를 중심으로
(Intertextuality between *Paradise Lost*
and the Bible in Adam's "My Story")

이진아*

목 차

- I. 서론
- II. 인간 창조이야기와 르네상스 인문주의
- III. 성서의 창조이야기와 아담의 이야기의 상호 텍스트성
- IV. 결론

I. 서론

존 밀턴(John Milton, 1608-1674)의 『잃어버린 낙원』(*Paradise Lost* 1667)은 영국이 매우 혼란스러운 격동기를 겪었던 17세기 중엽에 씌어졌다. 찰스(Charles) 1세의 처형과 절대 왕권의 붕괴, 청교도적 기반을 가진 크롬웰(Oliver Cromwell) 공화정의 성립과 그 몰락, 그리고 왕정 복고라는 정치적 사회 문화적 대변혁 속에서 이전 시대의 세계관과 정치체제는 심한 도전을 받았고, 그 도전에 대한 응전으로서 사회 여러 분야에서 변혁을 요구하는 새로운 탐색들이 모색되었다. 밀턴은 몸과 마음을 다하여 이러한 변화의 한 가운데 투신했던 작가로서, 크롬웰의 라틴어 비서로서 왕정 복고 후 죽음의 위기를 넘기고 살아 남아 실명

* 제주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전임강사

한 상태에서, “영원한 섭리를 역설하고 인간에 대한 신의 길을 정당화하기 위해”¹⁾ 『잃어버린 낙원』을 집필하였다. 시간 이전부터 마지막 심판까지, 하늘과 땅, 지옥을 넘나드는 이 서사시는 위기 속에 방황하는 인간의 대명제적인 질문들, 현재 우리가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이곳에 이르게 되었으며, 어디에서 와서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야 하며, 그 목표를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하는가 하는 질문들을 다룬다. 밀턴은 구체적인 역사현실이라는 텍스트 속에서 던져진 인간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이 질문들을 성서의 여러 이야기들 속에서 엮어 짬으로써 그 대답을 찾고자 하였다. 『잃어버린 낙원』 전체에서 다루는 인간에 대한 이러한 질문들은 타락 이전 아담(Adam)에 의해 그가 자신의 의식을 인식하는 순간에, 축소된 형태로 똑같이 던져지고 있다. 아담의 이야기(“My story”, PL. VIII, 204- 520)는 아담이 의식을 최초로 자각한 순간부터의 여러 가지 체험들을 통해 들려주는 인류의 기원에 대한 서술이며, 『잃어버린 낙원』의 대주제인 인간 자유의지와 신의 섭리 사이의 끊임없는 상호 관계를 태동기적인 형태로 제시하고 있다.

17세기 영국인들이 자신의 사상과 논증을 펴는 데 있어서 중요한 권위로서 성서에 가장 많이 의존하였듯이,²⁾ 성서는 밀턴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전이다. 당시 영국의 많은 시인들이 종교적인 성향을 강하게 띠고 있었는데, 밀턴은 그들 중 특히 독특한 성서 시인으로 다른 시인들처럼 “성서의 언어를 복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종교시에서 성서의 주제와 장르, 문체상의 비유들을 재구성하였다.”³⁾ 밀턴이 성서 속에서 새로운 텍스트를 엮어 낼 수 있었던 것은 성서의 표현양식이 가지는 특성에 힘입었다. 에릭 아우에르바흐가 지적하듯이, 성서는 이야기의 사건 혹은 상황의 결정적인 점들만 강조하고 나머지 많은 설명들

1) *Paradise Lost* I, 25-26. 밀턴의 작품들로부터의 인용은 Merrit Y. Hughes, ed., *John Milton: Complete Poems and Major Prose* (New York: Macmillan, 1957)에 의하고, 앞으로 인용문에서 『잃어버린 낙원』은 PL로 약칭하기로 한다.

2)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에 대해서는 Christopher Hill, *The English Bible and the Seventeenth-Century Revolution* (Allan Lane: Penguin, 1993)을 참조.

3) Mary Ann Radzinowicz, “How Milton Read the Bible: the Case of *Paradise Regained*,” *The Cambridge Companion to Milton*, ed. Dennis Danielson (Cambridge UP, 1989), 210.

을 여백으로 남기거나 배경으로 처리하여 그것들을 독자들의 해석이나 시각적 상상력에 맡긴다.⁴⁾ 밀턴은 그리스도교 인문주의의 관점에서 자유롭게 성서속의 사건과 대화를 재배열하고 확대하거나 새로운 설명을 삽입하여 『잃어버린 낙원』이라는 새로운 텍스트를 짜내었다. 이 글에서는 원문(text)으로서의 성서의 인간 창조 신화와 밀턴이 성서텍스트에서 새롭게 짜내어 아담을 통해 들려주는 인간 기원에 관한 또 하나의 텍스트, 아담 자신의 이야기를 비교함으로써 둘 사이에 나타나는 상호 텍스트성을 다루고자 한다.

II. 인간 창조 이야기와 르네상스 인문주의

밀턴이 인간에 대해 던진 질문들은 르네상스 그리스도교 인문주의자들의 공통된 중요 관심사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그리스도교 인문주의에서 인간은 육체적인 동시에 영적인 존재로서, 그 영적인 부분을 통해 인간은 신적인 존재와 연결된다. 인간은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을 연결하는 거대한 존재의 사다리 위에서 자유의지를 따라 자유롭게 위 아래로 움직일 수 있다. 다시 말해, 스스로 타락하여 동물의 수준으로 내려갈 수 있고, 신적 특성인 이성을 통해 자유롭게 천사의 단계로도 올라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성을 계발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증진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것으로, 그리스도교 인문주의자들은 교육을 통하여 인간이 이성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올바른 도덕적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계발할 수 있다고 보았다.

아담의 이야기에는 인간의 교육능력, 신과의 일치 능력, 인간의 신적 특성으로 표현되는 자유의지와 이성에 의한 자유로운 선택 등에 대한 밀턴의 그리스도교 인문주의적 견해가 깊이 스며들어 있다. 아담의 이야기는 8권에서 천사 라파엘이 아담이 창조되기 전에 만들어진 세계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끝냈을 때 시작된다. 이 순서는 『창세기』에서 세상이 창조

4) Eric Auerbach, *Mimesis: the Representation of Reality in Western Literature*, tr. Willard R. Trusk (New Jersey: Princeton UP, 1974), 10.

된 후, 그 다음에 인간이 창조된 것과 같은 순서를 따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인간 창조 이야기가 포함된 성서의 모세 오경은 여러 가지 편집 전승들에 의해 수집된 이야기들이 복잡하게 서로 엮여 짜여져 있는데, 여러 전승의 결들은 편집자들의 각기 다른 관점들을 반영하고 있다.⁵⁾ 인류의 기원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창세기』에는 인간 창조에 대해 약간 다른 관점의 두 가지 이야기가 등장한다. 첫 번째 창조 이야기는 천지 창조의 장대한 서사시(1.1-2.4)의 끝 부분에 들어있고, 2.5-2.25에서 되풀이되는 두 번째 이야기는 첫 번째 것보다 훨씬 오래된 전승에 속하며 보다 구체적이고 묘사적이다. 『창세기』 1-2.4a의 첫 번째 창조 이야기는 제관계 전승에 속하는데, 이 전승에서는 신이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동시에 각각 창조하여 만물을 인간의 손에 위탁했다라고 간략하게 설명한다. 한편, 야훼계 전승으로 이루어진 두 번째 창조 이야기(2.4b-2.45)에서는⁶⁾ 인간 남자와 여자의 창조 이야기가 자세하게 다루어지고, 남자가 먼저 만들어지고 여자는 남자보다 시간적으로 늦게 그리고 남자로부터 창조된다.

『잃어버린 낙원』에서 인간 기원을 다루는 아담의 이야기는 두 번째 창조이야기인 야훼계 전승에 기초를 두고 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객관적이고 묘사적인 삼인칭 화자와는 달리, 『잃어버린 낙원』에서는 첫 번째 인간인 아담이 자신의 체험을 상기함으로써 태초의 인류역사 속으로 독자들을 이끌어 간다. 이 일인칭 화법은 독자들에게 경험의 직접성을 느끼게 하고, 아담의 이야기를 집단적이라기 보다는 개인적으로 만든다. 밀턴이 창조 이야기의 화법을 일인칭으로 재구성한 것은 집단적이고 전체적인 체험보다는 개인적인 인간경험에 의미와 가치를 둔 르네상스 인문주의적인

5) 『창세기』가 속한 성서의 모세 오경의 어휘와 문체의 변화, 반복과 충돌, 사상의 차이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성서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러한 문제는 여러 가지 전승이 서로 혼합되어 있기 때문인데, 오경을 구성하고 있는 전승들은 “야훼계 전승”(J), “엘로힘계 전승”(E), “신명기계 전승”(D), “사제계 전승”(P)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각 전승들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각기 다른 시대에 다른 장소에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집성되었다. 이 전승들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창조 이야기의 각기 다른 전승에 대한 자세한 설명에 대해서는 이홍기, 『성서 입문 제 1권: 성서 일반 및 모세 오경』(서울: 분도 출판사, 1983), 71-97 참조. 그리고 제관계 전승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에 대해서는 B. W. 앤더슨, 『구약성서의 이해 III: 계약공동체의 쇄신』, 이성배 옮김(서울: 성 바오로 출판사, 1984), 제 1장을 참조.

6) 야훼계 전승에 대한 자세한 설명에 대해서는 P. 그릴로, 『성서학 개론 I: 신 백성 이스라엘』, 김수복 옮김(서울: 분도 출판사, 1983), 70-96을 참조.

관심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의 체험과 개인성의 발달에 주목하는 것은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시작되었던 르네상스 문화의 주요한 특징들 중의 하나였다.⁷⁾ 중세 시대에 인간은 가족이나 민족과 같은 집단의 일원으로서 자신을 인식했으나, 근대 초기에 이르러 인간을 개인으로, 영적인 존재로서의 개인으로 인식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고 인간의 객관적인 측면 뿐 아니라 주관적인 측면도 중요하게 간주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여기서,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의 이야기와 근대 초기에 시작된 개인성에 대한 강조에서 두드러지는 남성 중심성과의 관계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르네상스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중요시했다고 하나, 조안 켈리-개돌이 “여성에게도 르네상스가 있었는가?”라고 반문했듯이,⁸⁾ 르네상스 인문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주목할 만한 가치를 지닌 인간은 남성이었다. 앞서 지적했듯이 아담의 이야기는 성서의 두 번째 창조 이야기에 기초를 두고 있는데,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게 동시에 창조되었음을 시사하는 성서의 첫 창조 이야기와는 달리, 두 번째 이야기는 먼저 창조된 남성이 지적으로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는 해석의 기반이 되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중세와 근대초기의 그리스도교 인간관을 대표하는 스킨라 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바로 이 두 번째 이야기에 근거하여 여성은 남성에게서 나중에 창조된 불완전한 인간 존재라고 신학적으로 규정할 수 있었던 것이다.⁹⁾

그리고, 개인이면서 집단을 대표하는 아담을 그 히브리어(adam)에서 영어로 번역했을 때 일어나는 번역상의 오류 또한 주목할 만하다. 영어에서 “man”이 남성인 동시에 모든 인간(humankind)의 대표이듯이, 『잃

7) Jacob Burckhardt, *The Civilization of the Renaissance in Italy*, tr. S.G.C. Middlemore, 1878, 17 July 2000 (<http://www.idbsu.edu/courses/hy309/docs/burckhardt/2-1.html>).

8) Joan Kelly-Gadol, “Did Women have a Renaissance?” *Becoming Visible: Women in European History*, eds. Renate Bridenthal, Cludia Koonz, and Susan Stuard (Boston: Houghton Mifflin, 1987), 175-201. 켈리-개돌은 르네상스 시대에는 남성과 여성이 평등했다는 버크하르트식의 논리를 반박하면서, 르네상스 시대에 여성들에게 르네상스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9) St. Thomas Aquinas, *Summa Theologica*, tr. Fathers of the English Dominican Province (Westminster: Christian Classics, c1981), 1a 93.1.

『어버린 낙원』에서 아담은 개인 남성을 가리키는 동시에 총체적인 인류를 대표하는 인간이다. 그런데, 아담 이야기의 원전인 『창세기』 2.23-25의 히브리어 원전에서 남자(ish)와 여자(ishshah)는 각기 다른 단어로 표현되어 있고, 아담(adam)은 남녀를 합친 일반적인 인간을 의미하고 있다.¹⁰⁾ 물론, 아담의 이름에서 나타나는 의미의 왜곡은 영어 자체에 내포된 문제이다. 허나, 히브리어에 능통했을 밀턴이 아담을 오직 남자를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했다는 것은, 흔히 지적되듯이,¹¹⁾ 밀턴이 근본적으로 남권주의적인 성향으로 성서의 창조 이야기를 재구성했음을 단적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한 예이다. 남성 중심으로 재구성된 아담의 이야기에서 성서의 첫 창조 이야기는 세계의 창조에 대한 부분만이 이용되고, 인간 창조 이야기는 두 번째 창조이야기를 근거로 만들어져, 남성인 아담의 모습과 행동이 인간을 대표하는 특성들을 보여주게 된다.

III. 성서 창조 신화와 아담의 이야기의 상호텍스트성

『창세기』의 두 번째 창조 이야기에서 우리는 아담이 야훼 하느님에 의해 창조되어 낙원으로 옮겨졌다는 보고에 접할 뿐인데(2.1-8), 『어버린 낙원』에서는 아담이 직접 인류의 첫 의식의 순간에 대한 체험을 들려준다. 첫 의식의 순간에 시냇물을 내려다보며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헛된 나르시스적 욕망에 빠져들었던 이브와는 달리(PL. IV, 449-64), 아담은 의식이 들자 하늘을 올려다본다.

깊이 든 잠에서 새롭게 깨어났을 때
향기로운 땀에 젖어, 꽃으로 덮인 풀 위에
부드럽게 누여져 있는 나를 발견하였습니다.
태양 빛은 곧 향긋한 내 땀을 말려 냄새나게 하였습니다.
나는 궁금스런 시선을 똑바로 하늘을 향하고,
한동안 광활한 하늘을 응시하였습니다. 마침내

10) 그릴로 80-81.

11) 밀턴의 남권주의적 성향에 대한 연구의 한 예로, Mary Nyquist, "Fallen Differences, Fallogocentric Discourses: Losing Paradise Lost to History," *John Milton*, ed. Annabel Patterson (New York: Longman, 1992), 165-84.

재빨리 본능적인 동작으로
저편을 향하여 가려는 것처럼 벌떡 일어나
발을 땅에 딛고 똑바로 섰습니다.

As new waked from soundest sleep
Soft on the flowery herb I found me laid
In balmy sweat, which with his beams the sun
Soon dried, and on the reeking moisture fed.
Straight toward heaven my wondering eyes I turned,
And gazed a while the ample sky, till raised
By quick instinctive motion up I sprung,
As thitherward endeavoring, and upright
Stood on my feet:

(PL. VIII, 253-61)

아담의 첫 의식의 순간은 그를 다른 피조물들과 구별시켜준다. 하늘을 응시할 때 위를 향하는 아담의 얼굴은 인간을 다른 동물들이나 짐승들과 구별해주는 자세이다. 곧바로 선 아담의 직립 자세는 인간의 지성, 학문의 능력, 존재의 사다리에서 보다 높은 단계로 자신을 향상시킬 수 있는 능력 등을 의미한다.

누웠던 자리에서 일어난 후에야 비로소 아담은 자신을 둘러싼 외부세계를 의식하게 되고, 자기자신을 관찰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나서 나는 내 자신을 면밀히 살펴보며, 사지를 하나씩
관찰하고, 유연한 관절로 때로는 걷고 때로는 뛰며
활기차게 힘을 써보았습니다.

My self I then perused, and limb by limb
Surveyed, and sometimes went, and sometimes ran
With supple joints, and lively vigour led:

(PL. VIII, 267-70)

아담의 자기검토는 인간 지성이 비판적인 자아탐구의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자아 탐구의 과정에서 아담은 우선 자신의 육체에 주의를 기울인다. 자아 인식의 초기에 아담이 자신의 몸을 면밀히 살펴보고 운동을 하는 것은, 신체단련을 통해 인간은 용기와 강인한 인내, 영웅

적인 용맹 등의 덕들을 함양할 수 있게 된다는 밀턴의 교육관을 반영한다 (『교육론 *Of Education*』 638). 그는 그리스도인 교육에 있어서 신체 단련을 지적인 활동과 영성 훈련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이 견해는 물론 덕성과 지성에 못지 않게 위엄있고 튼튼하며 유연한 몸과 태도를 연마하는 것을 전인적인 교육과정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간주한 르네상스 인문주의 교육 이념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¹²⁾

자기 인식에 대한 아담의 호기심은 육체적 존재로서의 자신에 대한 탐구에서 곧바로 보다 깊은 차원에 속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탐구로 옮겨 간다.

•
 허나 나는 내가 누구인지 또는 어디서 어떻게 생겨났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말을 하려고 하며 말을 하자,
 혀가 순응하여 내가 보는 것은 무엇이든지 쉽게
 이름을 붙일 수 있었습니다. 태양아, 아름다운 빛아,
 그리고 참으로 신선하고 화사하게 빛을 받은 땅아,
 언덕과 계곡아, 강과 숲과 들판아,
 그리고 살아 움직이는 아름다운 피조물들아, 말해 보아라,
 너희들이 보았다면 말해보렴, 내가 어떻게 이 곳에 오게 되었니?
 내 스스로는 아니야: 그러면 선과 뛰어난 힘을 가진
 어떤 위대한 창조주에 의해서이지.
 내가 그분으로 인해 이렇게 살아 움직이고
 내가 아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으니,
 말해주렴, 내가 어떻게 그분을 알 수 있고 찬미할 수 있는지.

But who I was, or where, or from what cause,
 Knew not: to speak I tried, and forthwith spake,
 My tongue obeyed and readily could name
 Whate'er I saw. Thou sun, said I, fair light,
 And thou enlightened earth, so fresh and gay,
 Ye hills and dales, ye rivers, woods, and plains,
 And ye that live and move, fair creatures, tell,
 Tell, if ye saw, how came I thus, how here?
 Not of my self: by some great maker then,
 In goodness and in power pre-eminent:

12) W. H. Woodward, *Vittorino Da Feltre and Other Humanist Educators* (Toronto: U of Toronto P, 1996), 191.

Tell me, how may I know him, how adore,
From whom I have that thus I move and live,
And feel that I am happier than I know.

(PL. VIII, 271-82)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아담은 인간이 가진 가장 뛰어난 재능, 언어능력을 익힌다. 언어 능력은 인간의 능력 중 이성과 더불어 최고 능력으로, 인문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언어는 개인과 사회의 교육원리로서 매우 중요한 능력으로 간주되었다. 언어를 익힌 아담은 곧 이어 사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한다. 『창세기』에서 아담은 낙원 밖에서 창조되어 낙원으로 옮겨진 후 신이 옆에서 지켜보는 중에 다른 피조물들에 대한 지식을 가지게 된다(2.18-19). 그런데 『잃어버린 낙원』에서 아담이 이름 붙임을 통해 다른 피조물들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은 자신의 존재의 근원과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을 찾아가는 과정의 일부이다. 아담이 습득하는 사물에 대한 지식은 아담 자신의 근원에 대한 인식으로 이어진다. 즉, “피조물들에 대한 단계적인 명상 속에서”(PL. V, 510-11) 아담은 창조주에 대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첫 인간인 아담은 일련의 체험과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자신의 존재의 근원을 유추해나간다. 그의 탐구 과정은 밀턴이 지향하고 있는 교육목표를 이상적으로 구현하고 있다. 신에 대한 지식과 자기 인식에 대한 추구는 인문주의자들의 탐구에 있어서 일차적인 목표였다(『교육론』 631). 밀턴은 성서의 사건들을 아담이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정체성을 찾아가는 교육과정으로 재구성해나간다. 아담은 자유롭게 그리고 자신의 의지로 피조물들과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을 통해 신을 경배하고 찾는다. 아담은 아직 타락하지 않았으므로 본성적으로 선을 택하고 있는데, 즉, 아담의 자아탐구는 자신을 들어 높이거나 지적 호기심을 만족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신에 대한 인식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존재의 근원에 대한 방향 어린 탐구에 지친 아담과 신과의 첫 대면은 신비적 체험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 잠 속에서 일어난다.

그곳에서 조용한 잠이
먼저 나를 찾아와, 부드러운 압박감으로
나의 졸리운 감각을 소란스럽지 않게 사로잡았습니다. 그때

나는 이전의 무감각한 상태로 들어가
 녹아 없어져 버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내 머리맡에 꿈이 서있었습니다.

.....
 내 생각에, 신의 형상을 한 분이 와서
 말했습니다. 너의 처소에는 내가 필요하다, 아담아, 일어나거라,
 첫 인간, 무수한 인간들의 첫 조상으로 정해진
 너의 부름을 받아 내가 왔다,
 너를 위해 마련된 자리, 복락의 정원으로 너를 인도하기 위해,
 그렇게 말하고는 그분은 내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there gentle sleep
 First found me, and with soft oppression seized
 My drowsed sense, untroubld, though I thought
 I then was passing to my former state
 Insensible, and forthwith to dissolve:
 When suddenly stood at my head a dream

 One came, me thought, of shape Divine,
 And said, thy Mansion wants thee, Adam, rise,
 First Man, of Men innumerable ordain'd
 First Father, call'd by thee I come thy Guide
 To the Garden of bliss, thy seat prepar'd.
 So saying, by the hand he took me rais'd,

(PL. VIII, 287-300)

바바라 K. 레발스키(Barbara K. Lewalski)가 분류하듯이 아담의 이야기를 일종의 영적 자서전으로 볼 때,¹³⁾ 여기서 아담은 능동적인 탐구와 모색의 시기를 지나 잠과 같이 전적으로 수동적인 상태, 십자가의 성요한이 말하는 “어둔 밤”의 상태에서 영적 체험의 중심에 도달하고 있으며 그의 영혼은 신과 조우하게 된다. 의식이 처음 들었을 때 아담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났던 것과는 달리, 인간적인 노력을 온전히 포기하자 영적인 차원에서 아담은 신의 힘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게 된다. 스스로 일어서서 찾으려는 의지를 잠재우자 자신의 존재의 근원을 만나게 되고, 비로

13) Barbara Kiefer Lewalski, *Paradise Lost and the Rhetoric of Literary Forms* (New Jersey: Princeton UP, 1985), 211.

소 자신이 있어야 할 곳으로 가게 된다. 『창세기』에서 신은 창조주요 아담의 주인(Lord)으로 묘사된다. 그런데, 아담의 이야기에서는 신은 일차적으로 창조주이나, 아담에게 처음 모습을 드러내 보이는 신은 아담이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교육과정 속에서 인도자로서 그리고 교육자의 모습으로 더 강조되어 있다. 아담을 낙원으로 인도하는 신적인 형상을 한 존재는 삼위일체 중 스승의 역할을 했던 제 이격인 성자의 모습을 연상시킨다. 아담이 있어야 할 처소를 마련하고 그를 부르는 이 신적 존재의 말은 “내 아버지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습니다... 내가 가서 자리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그대들을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겠습니다.”(요한 14, 2-3)고 제자들을 위로한 예수의 메시지를 연상시킨다. 첫 번째 인간인 아담과 신과의 첫 대면에서 연상되는 성자의 모습은, 이후에 신의 뜻에 의해 인간으로 육화되는 성자에 의해 이루어질 두 번째 창조(PL. XII, 382)를 예시하고 있다.

아담이 꿈속에서 만나게 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대상은 그의 식욕을 돋구는 과일이다.

나무마다

가장 아름다운 과일들이 주렁주렁 달려 눈을
유혹했는데, 딱먹고 싶은 욕구가 갑작스레
내 안에 일어났습니다: 그로 인해 잠에서 깨어나
꿈에서 본 대로 모든 것이 생생하게 내 눈앞에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분의 거룩한 현존이
나무들 사이로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여기서 나의 방황은 새롭게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Each tree

Loaden with fairest fruit that hung to the eye
Tempting, stirred in me sudden appetite
To pluck and eat: whereat I wak'd, and found
Before mine Eyes all real, as the dream
Had lively shadow'd: here had new begun
My wandering, had not he who was my guide
Up hither, from among the trees appeared
Presence divine.

(PL. VIII, 306-14)

아담은 신의 인도를 받아 낙원으로 가는 도중에 이 과일 나무들을 보게 되는데, 꿈속에서도 과일들이 자신에게 끼친 영향력을 분명하게 기억한다. 먹음직스런 과일들은 그의 감각과 의지를 자극했으며, 그 욕망으로 인해 그가 지금까지 간절히 추구해왔던 신과의 가장 깊은 일치의 순간에서 깨어나게 된다. 여기서 “유혹하는/시험하는”(Tempting)이라는 단어는 장래에 일어나게 될 아담의 불순종을 즉각 연상시킨다. 그리고 신이 인도한 덕분에 시험으로 인한 방황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다고 아담이 시인하는 것은, 선과 악의 선택의 문제, 그리고 그로 인한 방황이 인간에게 있어서 본질적인 문제이므로 앞으로 있을 신의 계명이 인간의 선을 위한 것임을 정당화시켜준다. 또한 아담이 꿈속에서 신과 유혹적인 과일을 동시에 보았다는 것은 선과 악에 대한 인간의 잠재력이 인간 역사의 태초부터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불가피하게 공존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하기도 한다. 아담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신과 끊임없는 질문과 탐색 그리고 신의 인도를 통하여 자신의 위치를 찾아가는 아담과의 상호관계는, 그리스도교의 관점에서 볼 때, 인류역사를 관통하는 인간의지와 신의 섭리 사이에 벌어지는 긴장된 드라마를 개인적인 차원에서 재현하고 있다.

앞으로 낙원에서 이어질 신과 첫 인간과의 관계의 중심 축은 신이 아담에게 내린 계명이다.

그러나 정원 한 가운데 생명 나무 옆에 있는
선과 악의 지식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고,
나는 너의 순명과 성실의 약속을
정해놓았다.

.....
그것을 먹는 그날, 너는 내 유일한 명령을
어겼으니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 단호하게 그분은
엄한 금지를 발하셨는데, 내가 명령을 어기지 않기로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은
아직도 내 귀에 두렵게 울려 퍼집니다.

But of the tree whose operation brings

Knowledge of good and ill, which I have set
The Pledge of thy Obedience and thy Faith,
Amid the garden by the tree of life.

.....
That day thou eat'st thereof, my sole command
Transgrest, inevitably thou shalt die:
..... Sternly he pronounc'd
The rigid interdiction, which resounds
Yet dreadful in mine ear, though in my choice
Not to incur:

(PL. VIII, 323-26, 329-30, 333-35)

『창세기』에서는 신이 아담에게 내린 계명에 대해 아담의 대답이나 반응은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2. 15-17). 『창세기』의 간결하고 명령적인 신의 계명을, 밀턴은 금지, 약속, 계명, 명령 등 여러 가지 다른 말로 표현함으로써 그 계명에 함축된 의미를 새롭게 짜내고 있다. 계명의 내용은 명백히 금지("interdiction")이나, 금지 자체는 도덕적으로 중립적인 것이다. 그것은 아담의 성실과 순명을 약속("Pledge")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나타낼 수 있는 능력, 즉 선을 택하는 능력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다. 아담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인격체이므로, 신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무조건적인 복종이라기보다는 사랑과 충실함에 기초한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다("Him whom to love is to obey, and keep/His great command;" PL. VIII, 634-35). 신이 아담에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이성의 능력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신과 아담과의 계약관계는 제대로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아레오파지티카 Areopagitica』 4: 310). 그렇기 때문에 이후 낙원으로부터의 추방과 죽음은 아담의 불순종에 대한 신의 벌이라기보다는 아담이 스스로 선택한 고통스러운 결과가 되는 것이다.

성서의 인간 창조 이야기에서 신이 이브를 창조한 동기도 밀턴의 그리스도교적 인문주의의 관점에 의해 재구성되고 있다. 아담의 이야기에서 이 에피소드의 초점은 아담이 자기 인식을 발전시키는 것과 교사인 신이 아담이 바른 선택을 하도록 그의 능력을 시험하는 것에 있다. 『창세기』 2.18에서 신은 먼저 아담의 외로움을 걱정하여 그를 도울 동반자를 창조

하기로 한다. 그리하여 다른 피조물들이 인간을 위해 창조된다. 그 피조물들 안에서 아담의 짝이 보이지 않는다는 인식은 객관적인 관점에서 진술되어 있을 뿐이고, 그 인식의 주체는 언급되지 않는다. 그런데 『잃어버린 낙원』에서는 아담 자신이 그 필요성을 느끼고 신에게 청한다.

제 말에 노하지 마소서, 천상의 권위시여,

 동등하지 않은 것들끼리 어떤 사귀이
 어울리고, 어떤 조화나 참된 기쁨이 있겠습니까?

 제가 찾아온 동반관계란
 모든 이성적인 즐거움을
 함께 하기에 적합한 그런 관계를 말씀드리는데,
 동물은 그런 관계에서 인간의 짝이 될 수 없습니다

Let me not my words offend thee, Heav'nly Power,

 Among unequals what society
 Can sort, what harmony or true delight?

 Of fellowship I speak
 Such as I seek, fit to participate
 All rational delight, wherein the brute
 Cannot be human consort

(PL. VIII, 379, 383-84, 389-91)

아담의 선택능력을 교육시키려는 신은 아담이 자신이 홀로 있음을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 그 앞에 각 동물과 새를 하나씩이 아니라 쌍쌍이 데리고 와서 그들 이름들을 짓도록 한다. 짝을 짓고 오는 그들을 본 아담은 자신이 홀로 있음을 느끼게 되지만 열등한 동물들 가운데서는 자신에게 맞는 대화의 상대자를 발견할 수 없다.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모든 가능성들이 다 같은 가치를 가질 수는 없는 것이다. 아담은 자신과 함께 할 동반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자신에게 적합한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다. 밀턴이 『이혼의 교리와 원칙』 (*The Doctrine and Discipline of Divorce*)에서 결혼의 목적은 상호 동의에 의한 행복하고도 적합한 친구

관계라고 주장했듯이(3: 391), 아담은 함께 친밀한 관계를 나눌 수 있는 이성적 능력을 갖춘 동반자의 필요성에 대해 신에게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피력한다. 아담의 청을 들은 신은 아담 자신이 스스로 동반자를 선택했다는 점을 지적하여 아담으로 하여금 자신의 행동의 동기를 의식하도록 교육시킨다(PL. VIII, 300-401).

아담이 홀로 있는 인간의 불안전함을 겸손하게 인정하자, 마침내 신은 자신의 소크라테스식 대화의 의도를 밝힌다.

지금까지, 아담아, 나는 너를 시험하였는데,
네가 올바르게 이름 붙인 짐승들 뿐 아니라
네 자신에 대해서도 잘 알고,
네 안에 있는 영, 짐승에게는 주지 않은 나의 형상을
자유롭게 잘 표현하니 기쁘구나.
..... 나는, 네가 말하기도 전에,
인간이 혼자 있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네가 본 그런 벗들은
네게 예정된 짝이 아니니, 오직 시험을 통해
적합하고 올바른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Thus far to try thee, Adam, I was pleased,
And find thee knowing not of beasts alone,
Which thou hast rightly named, but of thy self,
Expressing well the spirit within thee free,
My image, not imparted to the brute
..... I, ere thou spakest,
Knew it not good for man to be alone,
And no such company as then thou sawst
Intended thee, for trial only brought,
To see how thou couldst judge of fit and meet:

(PL. VIII, 437-48)

신이 이끌어 가는 아담의 교육과정은 『창세기』에는 여백으로 남겨져 있는 부분이다. 신은 아담이 홀로 있는 외로움을 없애주려고 이브를 만들 결심을 하였지만, 이 기회도 아담의 이성적 능력을 키울 교육의 기회로 삼아 아담의 자유로운 선택의지에 의해 이브의 창조를 스스로 택하게 하

였던 것이다. 신의 모습은 인문주의 교육자와 매우 유사하고 신과 아담의 관계는 인문주의자 교사와 학생의 친밀한 관계를 보여주기도 한다.¹⁴⁾ 신은 아담의 도덕성과 지성을 키우는 아버지와 같은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의 학생인 아담이 자신의 개인성과 지적 능력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훈련을 통해 그를 계속 자극하고 이끌어 간다. 의식이 들면서부터 아담이 겪는 방황 속의 탐구과정은, 타락이후 여러 시련 속에서 악의 모든 유혹과 즐거움 속을 지나면서도 “자제하고 분별하여 참으로 더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아레오파지티카』 4:311) 능력을 키워나가야 할 그의 운명을 미리 알고 있는 신의 섭리에 의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또한 아담은 이 교육과정을 통해, 자유롭게 인식 능력을 계발해나가고 자신의 의견을 기탄 없이 피력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보다 완전한 자기 인식에 도달하게 된다. 여기서 밀턴은 그의 산문 『아레오파지티카』에서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사고와 표현의 자유, 지식에 대한 인간의 권리 등의 견해를 인간 기원의 대서사시 속에서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III. 결론

밀턴은 17세기 영국 사회가 겪은 여러 가지 변동 속에서 자신과 영국 국민의 정체성을 파악하고자 노력하였고, 당시 영국의 역사적 상황이라는 텍스트에서 던져지는 질문들을 성서라는 또 다른 텍스트 속에 엮어 짚으로써 그 해답들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렇게 해서 잉태된 또 하나의 텍스트인 『잃어버린 낙원』은, 제임스 홀리 헨포드(James Holly Hanford)가 지적한 바와 같이, 신학이라기 보다는 밀턴이 자신의 체험에 대해 내린 그리스도교 인문주의자로서의 “하나의 해석”이다.¹⁵⁾ 아담의 경험은 인간의 존엄성이란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것이기보다는 자신의 노력을 통해 추구하여 얻어야 할 그 무엇임을 시사한다. 그 과정에서 인간

14) Woodward 200-206.

15) James Holly Hanford, *John Milton: Poet and Humanist* (Cleveland: P of Western Reserve U, 1966), 180.

은 이성을 제발시켜 모든 가능성들 중에서 최선의 것을 택함으로써 자신의 존엄성을 실현하게 된다. 신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에 기초한 인간 존엄성은 아담이 자신의 교육과정에 있어서 도달해야 할 최고 목표이다. 또한 그것은 『잃어버린 낙원』에서 인간에게 신의 길을 정당화하려는 밀턴의 노력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하다. 성서의 인간창조 이야기를 개인적인 체험의 관점에서 재구성한 아담의 이야기는 타락이후 인간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되풀이 될 인간의 자유의지와 신의 섭리간의 상호 역학적인 드라마를 태동기적인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다.

참고문헌

- 그릴로, P. 『성서학 개론 I: 하느님 백성 이스라엘』. 김수복 옮김. 서울: 분도 출판사, 1983.
- 앤더슨, B. W. 『구약성서의 이해 II: 계약공동체의 발전』. 제석봉 옮김. 서울: 성바오로 출판사, 1983.
- . 『구약성서의 이해 III: 계약공동체의 쇠퇴』. 이성배 옮김 (서울: 성 바오로 출판사, 1984.
- 이흥기, 『성서 입문 제 1권: 성서 일반 및 모세 오경』. 서울: 분도 출판사, 1983.
- Aquinas, St. Thomas. *Summa Theologica*. Tr. Fathers of the English Dominican Province. Westminster: Christian Classics, c1981.
- Auerbach, Eric. *Mimesis: The Representation of Reality in Western Literature*. Tr. Willard R. Trusk. New Jersey: Princeton UP, 1974.
- Bate, Walter Jackson, ed. *Criticism: The Major Texts*.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1970.
- Burckhardt, Jacob. *The Civilization of the Renaissance in Italy*. Tr. S. G. C. Middlemore. 1878. 17 July 2000 <<http://www.idbsu.edu/courses/hy309/docs/burckhardt>>.
- Coiro, Ann Baynes. "To repair the ruins of our first parents: Of Education and Fallen Adam." *SEL* 28(1988): 133-147.
- Cooley, Ronald W. "Reformed Eloquence: Inability, Questioning, and Correction in *Paradise Lost*." *UTQ* 62(1992-1993): 232-55.
- Danielson, Dennis, ed. *The Cambridge Companion to Milton*.

Cambridge: Cambridge UP, 1989.

Evans, J. M. *Paradise Lost and the Genesis Tradition*. Oxford: Oxford UP, 1968.

Fish, Stanley E. *Surprised by Sin: the Reader in Paradise Lost*. Berkeley: U of California P, 1971.

Hughes, Merritt Y., ed. *John Milton: Complete Poems and Major Prose*. New York: Macmillan, 1957.

Hanford, James Holly. *John Milton: Poet and Humanist*. Cleveland: P of Western Reserve U, 1966.

Hill, Christopher. *The English Bible and the Seventeenth-Century Revolution*. Allen Lane: Penguin, 1993.

Lewalski, Barbara Kiefer. *Paradise Lost and the Rhetoric of Literary Forms*. New Jersey: Princeton UP, 1985.

Lieb, Michael. "The Sinews of Ulysses: Exercise and Education in Milton." *The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36:4(1985): 245-56.

Patterson, Annabel, ed. *John Milton*. New York: Longman, 1992.

Rad, Gerhard Von. *Genesis: A Commentary*. Tr. John H. Marks. Philadelphia: Westminster, 1956.

Renate, Bridenthal, Cludia Koonz, and Susan Stuard, eds. *Becoming Visible: Women in European History*. Boston: Houghton Mifflin, 1987.

Schwartz, Regina M. *Remembering and Repeating: Biblical Creation in Paradise Lost*. Cambridge: Cambridge UP, 1988.

Sims, James H, and Leland Ryken, eds. *Milton and Scriptural Tradition: The Bible into Poetry*. Columbia: U of Missouri P, 1984.

Summers, Joseph H. *The Muses Method: An Introduction to Paradise Lost*. Cambridge, Mass.: Harvard UP, 1970.

Williamson, George. "The Education of Adam." *MP* 61(1963): 96-109.

Woodward, W. H. *Vittorino Da Feltre and Other Humanist Educators*. Toronto: U of Toronto P, 1996.